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6. 5. 7.(토)	담당부서	중동아프리카통상과
담당과장	최진혁 과장 (044-203-5720)	담당자	윤선민 사무관(044-203-7521)

이란 정상순방과 연계하여, 이집트 경제사절단 활동 전개

- 대통령 예방 등을 통한 진출기업 애로해결 및 55억 달러 사업(프로젝트) 수주지원 -
- 장관급 '경제통상위원회' 와 비즈니스 포럼 연계 개최에 합의-
- 1:1 기업상담회를 통해 약 1천만 달러 수출계약 등 체결 -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란 정상순방과 연계해, 5.4~5.5 67개사 143명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이집트를 방문하고, 대통령 예방, 통상산업 장관 회담, 비즈니스 포럼 등 1:1 상담회를 가졌다.
- 이번 경제사절단 파견은 지난 3월 한·이집트 정상회담시 알시시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이집트에 파견한 경제사절단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외화 환전 등 현지진출기업 애로해결]

- 대통령 예방(5.4 오후, 현지시각)과 통상산업장관 회담(5.5 오전)을 통해 외화 환전 곤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진출기업들의 애로에 대해 이집트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 ① (외화환전 곤란) 대통령 예방 계기에 외화환전 곤란으로 원자재 수입이 어려워져 조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이집트 진출 우리기업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집트 측은 이번 달 안에 외환 애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집트 타렉 카빌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집트 중앙은행과 애로를 겪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외환규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채널을 가동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② 또한 정부조달 대상국가 및 참조국 제한, 공장등록제, 수입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지연 등에 대해서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어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도 구체적 사안별로 관련부처에 조치하여 한국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 * (정부조달 대상국 제한) 이집트 정부가 공공물자 조달시 입찰 대상국을 임의 제한하여 입찰 참여애로
- * (참조국 명단 미포함) 의료기기 등은 특정국가 제품 이외에는 수입이 불가했(한국 미포함) 제품수출에 걸림돌
- * (공장등록제) 일부 제품 수입시 제조공장이 특정 국제인증이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는 애로

[총 5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지원]

- 대통령 예방계기에 이집트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기업들이 우수한 품질과 성과로 철도, 해수담수화, 석유화학 설비(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품질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 주형환 장관은 알시시 대통령 예방계기에 한국기업들의 이집트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집트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정부도 지난 3월 정상회담시 양국간에 합의한 30억 달러 규모의 금융협력 방안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이집트 사업(프로젝트)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특히 카이로 도시철도(메트로) 5호선 공사수주지원(25억 달러), 해수담수화 시설 및 발전 기자재 수주지원(6억 달러)과 등 우리기업이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프로젝트)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녹색기후기금(GCF) 관련 후루가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4천4백만 달러)은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이외에도 현재 진행중인 카이로 도시철도(메트로) 3호선 전동차 수주(10억 달러)와 관련해 현지 생산비율이 80%로 높고 이집트내에 현지 고용창출도가 높은 우리 기업이 최종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이집트 측의 지원을 요청하고, 최종 계약단계인 타흐리르 석유화학 설비(플랜트) 조성사업(15억 달러)에 대한 이집트측의 관심을 요청했다.

[장관급 경제통상위원회 및 비즈니스 포럼 연례 개최 합의]

- 통상산업장관회담(5.5. 오전, 현지 시각)에서 주장관과 타렉 카빌 이집트 통상산업부 장관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장관급 “경제통상위원회”와 “비즈니스 포럼”을 상호 교차로 개최기로 합의하고 내년에 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기로 합의했다.
- 또한, 지난 3월 양국정상 회담시 체결된 “한-이집트 통상·산업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로 양국 산업장관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 워킹그룹 설치 의향서’에 서명하고 섬유, 정보기술(IT) 및 부품분야 이집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인력교류,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비즈니스 포럼과 1:1 상담회]

- 경제사절단 활동의 일환으로 5.5(월, 09:30-18:00, 현지시간) 카이로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호텔에서 한-이집트 비즈니스포럼과 1:1 기업상담회가 열렸다.

- 양국 경제인 200여명이 참여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수에즈 경제특구 개발, 이집트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과 설비(플랜트) 사업(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등 양국간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고, 이어진 네트워킹 오찬을 통해 양국 기업인 간 민간교류 활성화를 추진했다.
- 비즈니스 포럼 축사를 통해 주장관은 지난 정상 회담시 합의한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협력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 투자 및 교역 확대, 관광, 문화 등 교류협력 다각화 등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양국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1:1 상담회에서는 이집트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 33개사와 이집트 바이어 193개사가 기계장비·기자재, 의류기기,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322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약 천만불 규모의 계약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

기계·장비·기자재	스마트·유통	보건·의료·바이오	자동차·부품	플랜트·에너지·엔지니어링	에너지·환경	IT·전기·전자	합계
10	3	8	3	3	2	4	33

[주요 성공사례]

- (A사)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로서, 이집트내 한국차 점유율은 40% 이상이며, 전체 자동차의 80% 이상이 2000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량인 점에 착안하여, 바이어 2개사와 총 550만불 규모의 수출 MOU 체결
- (B사) 유압햄머 제조업체로서, 이번 상담회 참가를 계기로 ‘13년이후 거래가 중단된 바이어를 다시 만나 7만불의 현장 구두계약을 체결
- (C사) 34년간 니들펀칭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집트 업체와 연내 150만 규모로 수출하기로 합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윤선민 사무관(044-203-75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